

「과목」 \_ 박성룡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과목에 과물(果物)들이 무르익어 있는 사태처럼  
나를 경악케 하는 것은 없다.

뿌리는 박질(薄質)\* 붉은 황토에  
가지들은 한낱 비바람들 속에 뻗어 출렁거렸으나

모든 것이 멸렬(滅裂)\*하는 가을을 가려 그는 홀로  
황홀한 빛깔과 무게의 은총을 지나게 되는

과목에 과물(果物)들이 무르익어 있는 사태처럼  
나를 경악케 하는 것은 없다.

— 흔히 시를 잃고 저무는 한 해, 그 가을에도  
나는 이 과목의 기적 앞에서 시력(視力)을 회복한다.

- 박성룡, 「과목」

\*박질: '메마른 성질'이라는 의미로 시인이 새로 만든 말.  
\*멸렬: 찢기고 흩어져 완전히 형태를 잃음.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소멸과 조락의 계절인 가을에 과목을 보며 얻은 깨달음을 노래한 시이다. 화자는 과일나무에 과일이 열려 있는 평범한 모습을 일종의 '사태'로 표현하고, 그것을 본 자신이 '경악'한다고 함으로써 자연의 변화에 대한 경이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섭리에 대해 자신이 새삼스러운 깨달음을 얻게 된 상황을 '시력을 회복한다'는 표현으로 부각하고 있다.

- 1연: 과물을 매단 과목으로부터 느끼는 경이로움
- 2연: 과목이 겪은 시련
- 3연: 가을에 과목이 누리는 은총
- 4연: 과물을 매단 과목으로부터 느끼는 경이로움
- 5연: 삶에 대해 얻는 새로운 깨달음

✓ 주제 : 자연의 변화에 깃든 섭리에 대한 경이로움과 깨달음

- ① 2연에 있는 '붉은'이라는 색채어는 박질의 황토가 지닌 속성을 가리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② 작품의 표면에 드러난 화자인 '나'가 자신의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 ③ 1연과 4연에서 '과목에 과물들이 무르익어 있는 사태처럼 / 나를 경악케 하는 것은 없다.'라는 문장을 반복하여 화자가 느끼는 경이로움을 강조하였다.
- ④ '시를 잃'는다는 것, '가을'이 되어 '한 해'가 저문다는 것은 상실과 조락의 분위기를 환기한다고 할 수 있다.
- ⑤ '나는 이 과목의 기적 앞에서 시력을 회복한다'는 것은 과목에 대한 인식을 계기로, 화자 자신이 삶에 대해 가진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⑥ 이 작품은 자연의 모습에 대한 평범한 관찰 내용을 생경하게 드러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 ⑦ '과목에 과물들이 무르익어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사태'로, 그에 대한 화자의 감회를 '경악'으로 표현한 것은, 다소 과장된 느낌의 한자어를 사용하여 평범한 관찰 내용을 생경하게 드러냄으로써 자연의 섭리에 대한 새삼스러운 경탄을 부각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⑧ 과목이 '박질'인 토양에 뿌리를 박고 '비바람들'에 가지가 출렁거리는 부정적 조건을 이겨 낸 점을 제시한 것은, 순환적 리듬을 근거로 허무와 절망에 빠지지 않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주목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군.
- ⑨ 과목이 '모든 것이 멸렬하는' 부정적 변화에도 '황홀한 빛깔과 무게의 은총'을 지니는 점을 언급한 것은, 인간의 내적인 성장과 결실에 대한 기대와 연관 지을 수 있겠군.

[ THE - 깊은 독해 ]

\* 제목 '과목'은 쉽게 말하면 과일나무를 뜻한다. 열매를 얻기 위하여 가꾸는 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과목에 과물(果物)들이 무르익어 있는 사태처럼

→ 과목에 과일들이 탐스럽게 열려 있는 모습을 말한다. 여기서 '사태'는 원래 산사태와 같이 무너져 내려앉은 일을 뜻하는 말인데, 여기서는 과일들이 탐스럽게, 마치 쏟아질 것처럼 열린 모습을 참신하게 나타낸 말이다.

나를 경악케 하는 것은 없다.

→ 화자가 제시되었다. 화자는 과목에 과일이 쏟아질 듯 열린 모습을 보면서 가장 큰 충격을 얻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경악'이라는 시어도 위의 '사태'와 마찬가지로 자연의 경이로움을 신선하게 표현한 말로, 화자의 정서적 충격과 발견의 기쁨을 나타낸다.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었다.

▶1연 : 과목에서 느끼는 경이로움

뿌리는 박질 붉은 황토에  
가지들은 한낱 비바람들 속에 뻗어 출렁거렸으나

→ 과목의 뿌리는 메마른 붉은 황토에 뻗고, 가지들은 비바람을 맞고 흔들거렸던 상황이다. 결실을 맺기 위해 시련을 겪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박질 붉은 황토'와 '비바람들'은 고난과 시련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박질'은 메마른 성질이라는 뜻으로, 시인이 새롭게 만든 어휘이다. 따라서 '박질 붉은 황토'는 메마른 땅이라는 의미로, 색채 이미지를 통해 척박한 생존 여건을 강조하였다.

▶2연 : 과목이 겪는 시련

모든 것이 멸렬(滅裂)하는 가을을 가려 그는 홀로  
황홀한 빛깔과 무게의 은총을 지니게 되는

→ 모든 것이 흩어져 소멸하는 가을을 끝까지 과목은('그는') 홀로 충실한 열매(=과물)로 결실한다는 의미이다. 이때 '모든 것이 멸렬하는 가을'은 상실과 조락의 이미지를 환기한다. '황홀한 빛깔의 무게의 은총'은 과물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말이다. '모든 것이 멸렬하'지만 과목은 가을에 과물을 지니게 된다는 점에서 '모든 것'과 '과목'의 대조가 나타나며, 가을이라는 계절이 이중성이 나타난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빛깔과 무게'라는 표현에서 과물의 외적, 내적 충실이 모두 나타난다. '은총'이라는 표현은 결실이 하나님 의 은총이라는 기독교적 시각이 반영된 표현이다.

▶3연 : 가을에 은총의 결실을 지니는 과목

과목에 과물들이 무르익어 있는 사태처럼  
나를 경악케 하는 것은 없다.

→ 1연을 반복하여 화자의 경이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4연 : 과목에서 느끼는 경이로움

- 흔히 시를 읽고 저무는 한 해, 그 가을에도

→ 여기서 '시를 읽'는다는 것은 순수함함을 읽고, 마음이 황폐해진다는 의미이다. 시인이 시를 잘 쓰지 못할 정도로 허무와 절망에 빠진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저무는 한 해'는 상실과 조락, 허무감 등을 유발하는 시간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 과목의 기적 앞에서 시력을 회복한다.

→ 흔히 순수한 마음을 잃고 허무하게 한 해가 지나가면, 그 가을에도 화자는 과목에 과물들이 탐스럽게 열린 모습을 보고 삶에 대한 통찰력을 지니게 된 상황이다. 이때 '과목의 기적'은 가을에 과목에 과물들이 무르익어 있는 것을 말한다. '시력을 회복한다'는 것은 삶의 힘을 느끼며,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자연의 섭리와 질서를 인식한다는 것이다. 즉, 자연의 섭리를 깨달은 긍정적인 변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5연 : 가을에 얻는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 '시를 읽'는다는 것에 집중해서 작품을 독해하면, 해당 연은 시를 쓰지 못하고 황폐한 가을을 맞고 있는 화자의 반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화자는 고난을 극복하고 열매를 맺은 나무를 보면서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있는 것이다.

[ 수능적 독해 Point ]

- 화자 : 화자 '나'가 겉으로 드러남 [과목을 관찰하는 이]
- 상황 : 가을에 과일나무에 무르익은 과물들을 보며 깨달음을 얻음
- 정서·태도 : 자연 섭리에 대한 경이로움 [관조, 사색, 주지적]

[ 연 관 - 기 출 문 제 ]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느 해 늦가을 어느 날 오후,  
나는 경부선 급행열차를 타고 있었다.

열차가 수원(水原)을 지날 무렵,  
서호(西湖)에 반사된 현란한 저녁해가  
차창 가득히 어떻게나 눈부시던지,

나는 골든 델리셔스라는  
사과덩이 속을 파고드는  
㉡한 마리 눈먼 벌레가 되었다.

[A]

<추수가 끝난 들녘도  
있이 진 잡목숲도, 인가(人家)도,  
황금빛으로 무르익은 과육(果肉) 속이었다.>  
- 김종길, 「저녁해」

(나)

과목에 과물들이 무르익어 있는 사태처럼  
나를 경악케 하는 것은 없다.

뿌리는 박질 붉은 황토에  
㉢가지들은 한낱 비바람들 속에 뺏어 출렁거렸으나

모든 것이 멀렬하는 가을을 가려 그는 홀로  
황홀한 빛깔과 무게의 은총을 지니게 되는

과목에 과물들이 무르익어 있는 사태처럼  
나를 경악케 하는 것은 없다.  
— 흔히 시를 잃고 저무는 한 해, 그 가을에도  
나는 이 과목의 기적 앞에 시력을 회복한다.  
- 박성룡, 「과목(果木)」

(다)

아, 그래,  
㉣건재약(乾材藥) 냄새 유달리 구수하고 그윽하던  
한넛가 대실 약방…… 알다 뿐인가

수염 곱게 기르고 풍채 좋던  
그 노인께서 세상을 떠났다고?  
아니, 그게 벌써 여러 해 됐다고?

그리고 조금 내려와서  
팔포(八浦) 웃동네 모퉁이  
혼자 늙으며 술장사하던  
사랑(蛇梁)섬 창권(昌權)이 고모,  
노상 동백기름을 바르던  
㉤아, 그분 말이라, 바람같이 뿔다고?

하기야 사람 소식이야 들어 무얼 하나,  
끝내는 흐르고 가고 하게 마련인 것을……

[B]

<그러나 가령 둔덕에 오르면  
햇빛과 바람 속에서 군데 군데 대밭이  
아직도 그전처럼 시원스레 빛나며 흔들리고 있다든지  
못물이 먼 데서 그렇다든지  
혹은 섬들이 졸면서 떠 있다든지>  
요컨대 그런 일들이 그저  
내 일같이 반갑고 고맙고 할 따름이라네.  
- 박재삼, 「고향소식」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는 화자가 주목하는 장면의 초점을 맞추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가), (다)는 화자가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자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 ③ (나), (다)는 화자의 시선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 ④ (가)~(다)는 모두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⑤ (가)~(다)는 모두 구체적인 지명을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2. <보기>는 (나)에 대한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학생들의 의견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나)의 짜임새는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 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말해 봅시다.

1연	—	2~4연	—	5연
[가]		[나]		[다]

학생 1: 도입부인 [가]은 마치 선언이라도 하듯이 강하고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하고 있어서 인상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학생 2: [가]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화자가 왜 ‘경악’하는지 그 까닭을 궁금하게 여길 것 같아요.

학생 3: [나]의 2, 3연을 통해 [가]에서 ‘나를 경악케 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한 까닭이 드러나고 있어요.

학생 4: [나]의 4연에서 [가]이 다시 반복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시적 의미가 강조되고 있어요.

학생 5: 시상의 흐름으로 보아 [다]의 ‘흔히 시를 읽고 저무는 한 해’는 [가]과 [나]의 ‘과목에 과물들이 무르익어 있는 사태’에 의해 각성된 화자의 심적 상태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어요.

- ① 학생1    ② 학생2    ③ 학생3    ④ 학생4    ⑤ 학생5

3. <보기>를 바탕으로 [A]와 [B]에 대해 설명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풍경은 물리적 대상 그 자체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눈으로 포착된 대상에 인간의 정서가 개입되어 재구성됨으로써 풍경이 탄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 사람이 동일한 물리적 대상을 바라보더라도 풍경은 저마다 다를 수 있다.

- ① [A]의 풍경은 ‘들녘’, ‘잡목숲’, ‘인가’가 화자의 내면에서 ‘황금빛으로 무르익은 과육 속’인 것처럼 느껴지는 정서적 반응을 거쳐 재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A]의 풍경은 ‘차창’이라는 단계를 하나 더 거친 것이므로 화자와 함께 기차를 탄 다른 사람들도 [A]와 동일한 풍경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 ③ [B]의 풍경은 화자의 내면에서 그리움의 정서에 의해 재구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④ [B]의 풍경으로 미루어 화자는 ‘끝내는 흐르고 가게 마련’인 인간사를 생각할 때와는 달리 정서적으로 위안을 얻어 내면의 동요가 가라앉아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⑤ [A]의 풍경은 화자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목격한 것을 대상으로 재구성되었지만, [B]의 풍경은 화자의 기억에 남아 있는 고향의 옛 모습들로 재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범위를 점차 좁혀가며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② ㉡: 다른 대상에 빗대어 화자 자신의 감동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상징적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 자연 현상을 끌어들이고 있다.
- ④ ㉣: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어순의 도치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 All-바르게 확인하는 정답 및 해설 ]

1.

[ 정답 SCAN ] ①

① (가)에서는 차창을 통해 바라본 경치 한 장면이 화자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화자는 순간적으로 포착한 경치에 흠뻑 젖어 그것이 마치 사과의 과육 속인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는 화자가 주목하는 풍경을 초점으로 하여 시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에서는 화자가 주목하는 '과목에 과물들이 무르익어 있는 사태'에 초점이 맞추어져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과일나무에 과일이 익어가는 일은 가을이면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이 시에서는 특별히 화자의 주목을 받으며 시상 전개 과정에서 의미 있는 장면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 오답 SCAN ]

- ② (가)의 경우, 인상적인 풍경 체험을 회상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화자가 자신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다)에도 부분적으로 고향의 사람이나 자연을 회상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화자가 자신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나)에서 화자의 시선은 '과목에 과물들이 무르익어 있는 사태'에 머물러 있다. (다)에서도 화자의 의식이 먼 곳에 있는 고향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다. 따라서 (나), (다) 모두 화자의 시선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동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 ④ (가)에는 과거의 특정 장면과 그에 대한 감동이 나타나 있을 뿐 현재와의 대비는 나타나 있지 않다. (나)의 경우에는 2연을 시련에 흔들려 온 '과목'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으로, 3연을 시련을 극복하고 결실을 맺은 현재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의 경우에는 1연과 2연에 각각 과거와 현재의 대비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다. '노인'의 풍채 좋던 옛 모습과 그의 죽음(1연), '창권이 고모'의 동백기름 바르던 옛 모습과 그녀의 죽음(2연)이 이에 해당한다.
- ⑤ (가)에는 '수원'과 '서호', (다)에는 '한넛가 대실'과 '팔포(八浦)'와 '사랑(蛇)섬' 등의 구체적인 지명이 나온다. 그러나 (나)에는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지 않는다. 또한 (가)에서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함으로써 그리움의 정서가 심화되는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

[ 정답 SCAN ] ⑤

⑤ (나)의 화자는 '과목에 과물들이 무르익어 있는 사태'를 바라보며 '경악'한다. 평소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자연 현상인데 어느 순간 그것이 시련을 이겨 내고 마침내 '황홀한 빛깔과 무게'를 지니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 화자가 '경악'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과목에 과물들이 무르익어 있는 사태'의 의미는 [ㄱ]과 [ㄴ]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ㄷ]에서는 그와 같은 '사태'와 '경악'이 화자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고 있다. '이 과목의 기적 앞에 시력을 회복한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ㄷ]의 '흔히 시를 읽고 저무는 한 해'는 '과목에 과물들이 무르익어 있는 사태'에 의해 각성된 화자의 심적 상태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별다른 의미도, 의욕도 없이 살아가는 일상적 시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오답 SCAN ]

- ①, ② (나)에서 시상의 초점을 이루는 것은 1, 4연에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을 도입부인 1연에서부터 마치 선언이라도 하듯이 '사태', '경악'같은 강한 인상을 주는 말과 '없다'와 같은 단정적인 말투로 제시한 것이 이 시의 특징이다. 이러한 시상 전개 방식은 점차적으로 시상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일반적인 전개 방식과는 달라 독자를 의아하게 만든다. 게다가 과일나무에 과일이 무르익어 있는 게 왜 '사태'이고, 그에 대해 왜 '경악'하게 됐는지 의문도 생기게 된다. 요컨대 이 시는 시상을 도입하는 방식이 상당히 특이하여 독자의 뇌리에 의문과 함께 강한 인상을 심어 주는 것이다.
- ③ 1연에는 화자가 왜 '과목에 과물들이 무르익어 있는 사태'를 보고 '경악'하게 됐는지 이유가 밝혀져 있지 않아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그 이유는 1연을 상세화한 2, 3연에 와서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즉, 화자가 '경악'한 이유는 뿌리는 척박한 땅에 박혀 있고 가지는 비바람에 시달리면서도 모든 것들이 사라져가는 가을에 과목만은 황홀한 빛깔과 무게를 지니기 때문인 것이다.
- ④ 1연과 4연은 반복이고, 반복은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를 보인다.

3.

[ 정답 SCAN ] ㉔

㉔ '차창'이라는 단계가 추가되었다고 해도 결국에는 물리적 대상이 내면의 정서와 만나 풍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내면의 정서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화자와 함께 기차를 탄 사람이라 해서 [A]와 동일한 풍경을 공유하게 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오답 SCAN ]

- ① [A]의 물리적 대상은 '추수가 끝난 들녘', '잎이 진 잡목숲', '인가'이다. 보통이라면 소멸하는 것들이 가져오는 쓸쓸함을 느끼게 되는 풍경이지만, (가)의 경우 거기에 '현란한 저녁해'의 눈부신 빛이 드리워짐으로써 화자는 그곳을 '황금빛으로 무르익은 과육 속'인 것처럼 느끼게 된다. 이처럼 화자의 느낌, 즉 정서적 반응을 거쳐 재구성된 것이 [A]의 풍경인 것이다.
- ③ [B]는 고향의 '대밭', '못물', '섬들'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와 어울려 고향의 풍경이 형성되고 있다.
- ④ [B]의 풍경에 등장하는 자연은 '끝내는 흐르고 가고 하게 마련'인 인간사와는 달리 '아직도 그전처럼'있는, 즉 변치 않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변치 않는 자연의 속성에 주목함으로써 화자는 위안을 얻고 인간사에 대한 허무로부터 벗어나 정서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 주게 되는 것이다.
- ⑤ [A]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목격한 물리적 대상에 화자의 정서가 개입됨으로써 재구성된 풍경이다. [B]는 고향을 떠나 객지에 있는 화자가 과거의 고향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그리고 있는 풍경이다.

4.

[ 정답 SCAN ] ㉕

㉕ ㉔은 '아, 그분 말이라, (그분이) 바람같이 뒀다고?'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어순이 도치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㉔은 어순의 도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람같이 뒀다'는 비유와 '-고?'의 의문형 표현 등이 어울려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 오답 SCAN ]

- ① ㉔에서는 '어느 해 → 늦가을 → 어느날→오후'로 점차 범위를 좁혀 가며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이 시의 중심을 이루는 낙조 풍경으로 초점을 모아 가는 효과로 이어진다.
- ② ㉔에서는 화자가 자신을 '한 마리 눈먼 벌레'에 빗대어, 풍경에 도취된 상태와 그에 대한 감동을 드러내고 있다.
- ③ ㉔은 '비바람들'에 흔들리고 있는 '과목'의 '가지'를 묘사한 것이다. 여기서 자연 현상인 '비바람들'은 '과목'이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징성에 힘입어 이 시는 더욱 심화된 의미를 얻게 된다.
- ④ ㉔에서는 '건재약 냄새'라는 후각적 이미지로 '한낮가대실 약방'에 대해 화자가 간직하고 있는 친근한 느낌을 드러내고 있다.